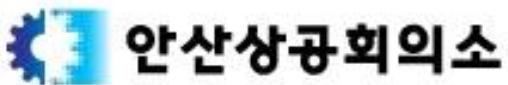


2026. 1. 14.(수)

회원조사팀

2026년 1/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안산상공회의소

목 차

I. 조사 개요	2
II.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4
1. 종합 경기전망	4
2. 업종별 경기전망	5
3. 항목별 경기전망	6
4. 기타 조사 내용	7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안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유관기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대상

- 안산지역 제조업체

3. 조사 기간

- 2025년 12월 8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 보완 조사: 2025년 12월 15일(월) ~ 2025년 12월 17일(수)

4.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5. 조사 내용

- 2025년 4/4분기 실적 및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등)
- 기업이 바라본 2026년 경제전망, 2026년도 경영계획 등

6. 응답 현황: 총 107개사

업 종	응 답 수	업 종	응 답 수	업 종	응 답 수
섬유의복	7 (6.5%)	비 금 속	6 (5.7%)	전기전자	17 (15.9%)
목재종이	5 (4.7%)	철강금속	18 (16.8%)	운송장비	6 (5.6%)
석유화학	12 (11.2%)	기계설비	30 (28.0%)	기 타	6 (5.6%)

7.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작성 방법

- 응답 업체의 직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를 ‘호전’, ‘악화’, ‘불변’으로 표시한 후, 이를 지수화함.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한 경우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인 경우 ‘악화’로 표시한 업체가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 \frac{\text{'호전' 응답업체수} - \text{'악화' 응답업체수}}{\text{(BSI)}} \times 100 + 100$$

전체 응답업체수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8. 제조업종별 재분류

- 본 보고서상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유사 업종을 통합시켜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으며,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 재분류표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재 분 류	비 고
섬유제품 제조업	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섬유의복	피혁, 염색, 가죽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목재종이	출판, 인쇄, 펄프
가구 제조업	3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석유화학	석유화합물, 도료, 의약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비 금 속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철강금속	철강, 금속, 조립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기전자	전기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계설비	기계설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운송장비	자동차 부품, 운송장비 부품
그 외 제조업	10,11,12,27,33,34	기 타	정밀기기, 식료품 등

II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1. 종합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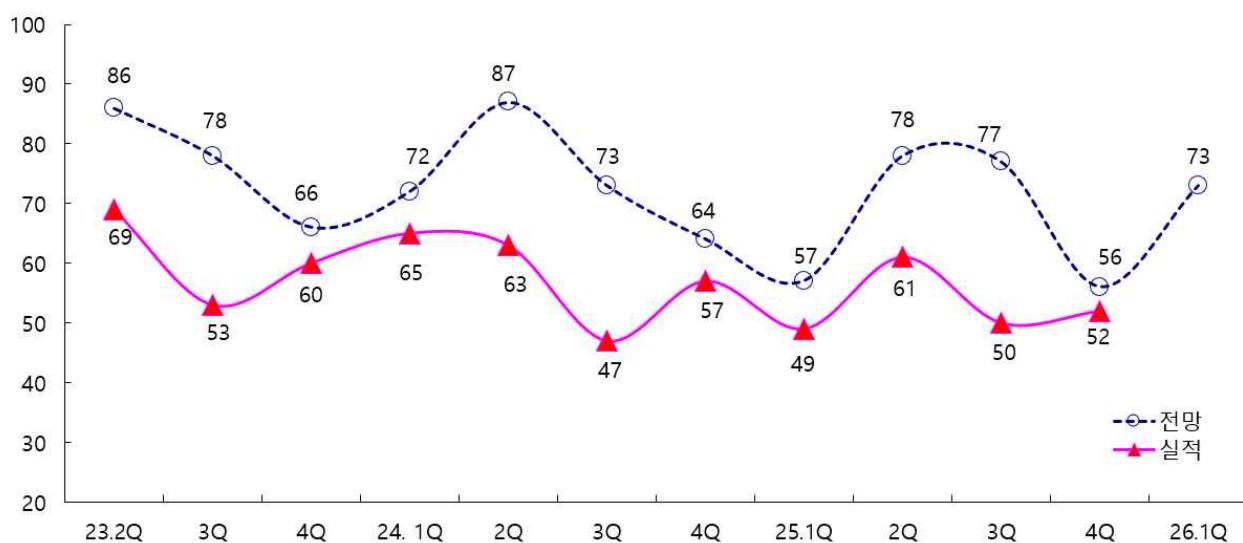
안산 제조기업 26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 '72.9', 전분기 대비 반등했지만,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위축

- 안산지역 2026년 1분기 BSI '72.9'
- 그러나 BSI 기준치(100) 하회, 기업 체감경기 부정적 전망 지속
- 응답기업 35.5%,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2025년도와 비슷' 전망

- 안산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1/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종합 전망치는 '72.9'를 기록함.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77.3)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74.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전분기 대비 반등하였으나 기준치 100에는 미치지 못해, 경기 호전보다는 '악화'로 인식하는 기업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이러한 인식의 주요인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 고환율·고금리 상황,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단위 %)



*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

2. 업종별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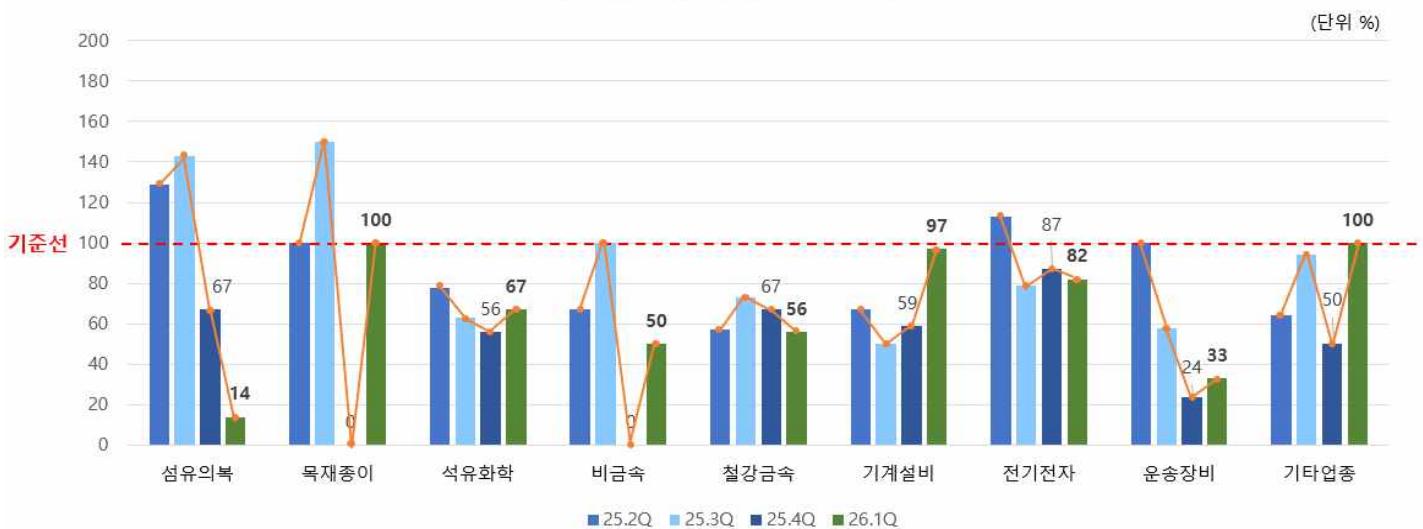
- 목재종이(100), 기계설비(97), 기타(100)업종은 보합 전망됨.
- 전기전자(82)업종은 부진 전망됨.
- 석유화학(67), 철강금속(56), 비금속(50), 운송장비(33), 섬유의복(14)업종은 침체 전망됨.

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업 종	2025				2026 1/4	비고	업 종	2025				2026 1/4	비고
	1/4	2/4	3/4	4/4				1/4	2/4	3/4	4/4		
종합경기	56.1	78	76.7	53.3	72.9	↑	철강금속	37	57	73	67	56	↑
섬유의복	117	129	143	67	14	↑	기계설비	74	67	50	59	97	↔
목재종이	50	100	150	0	100	↔	전기전자	47	113	79	87	82	↔
석유화학	58	78	63	56	67	↑	운송장비	50	100	58	24	33	↑
비 금 속	80	67	100	0	50	↑	기 타	30	64	94	50	100	↔

주: 1) ☀ = 호조(106~), ↔ = 보합(105 ~ 95), ⚪ = 부진(94 ~ 75), ↑ = 침체(~74)

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



3. 항목별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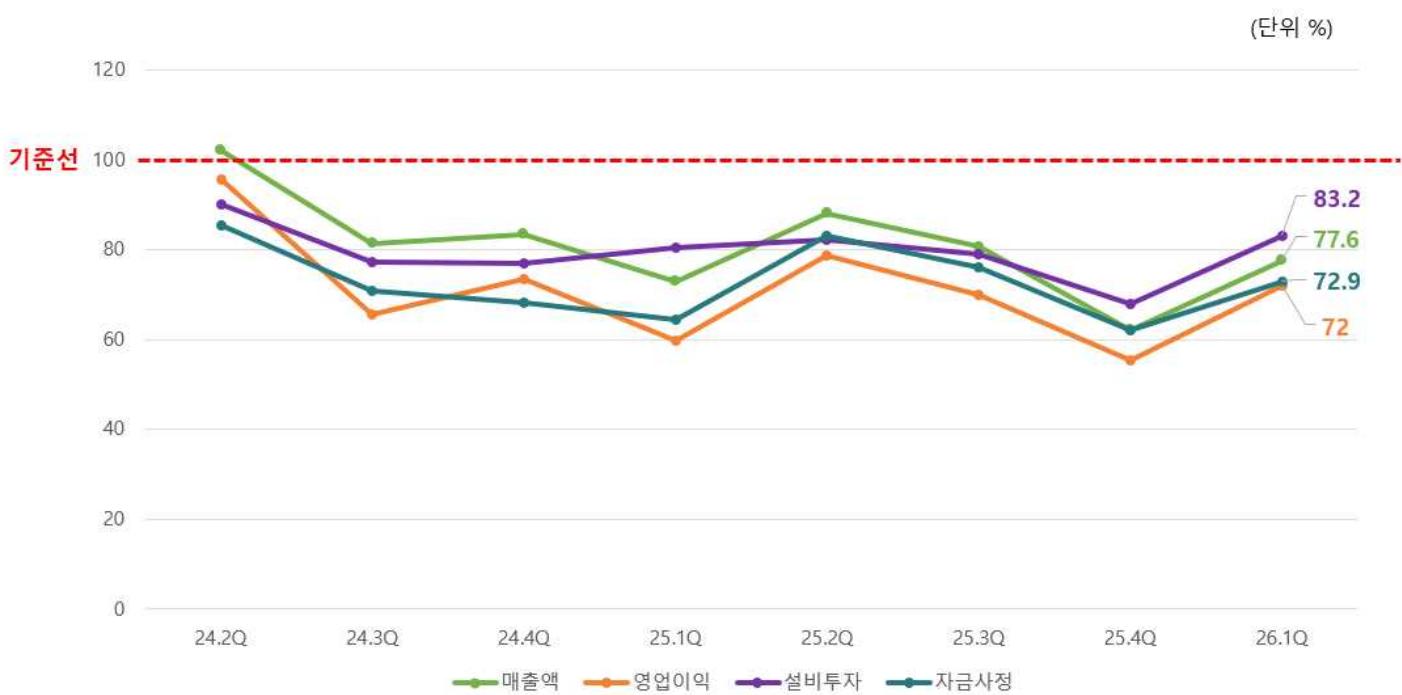
- 설비투자(83.2), 매출액(77.6)은 부진 전망됨.
- 자금사정(72.9), 영업이익(72.0)은 침체 전망됨.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구 분	2025				2026	비 고
	1/4	2/4	3/4	4/4	1/4	
종합(체감)경기	56.0	78.0	76.7	55.3	72.9	↑
매 출 액	72.9	88.1	80.6	62.1	77.6	↔
영업이익	59.8	78.8	69.8	55.3	72.0	↑
설비투자	80.4	82.2	79.1	68.0	83.2	↔
자금사정	64.5	83.1	76.0	62.1	72.9	↑

주: 1) ⚭ = 호조(106~), ⚮ = 보합(105~95), ⚪ = 부진(94~75), ↑ = 침체(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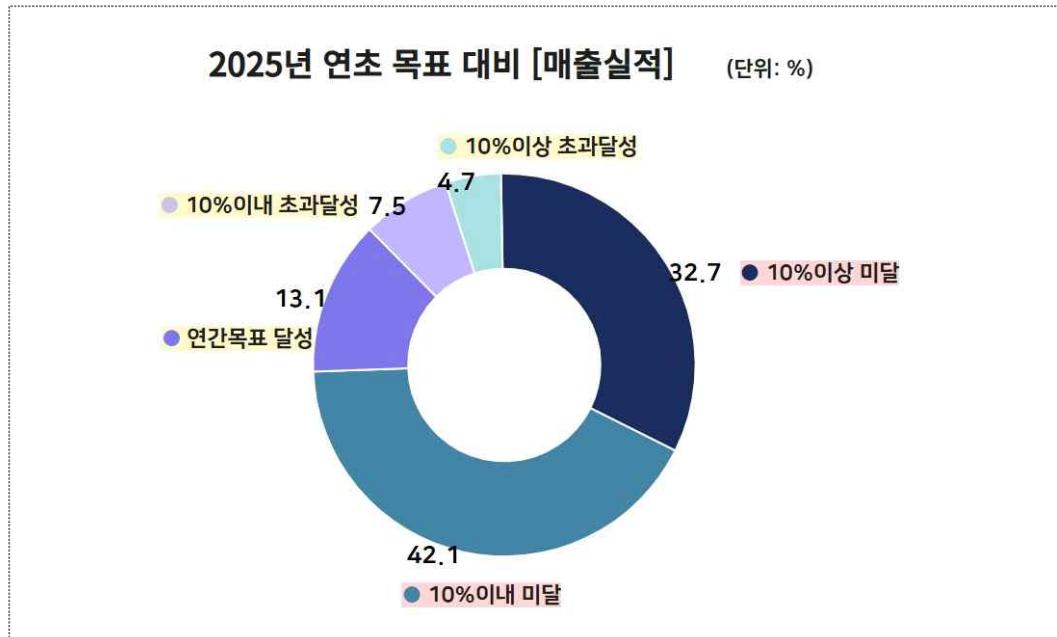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4. 기타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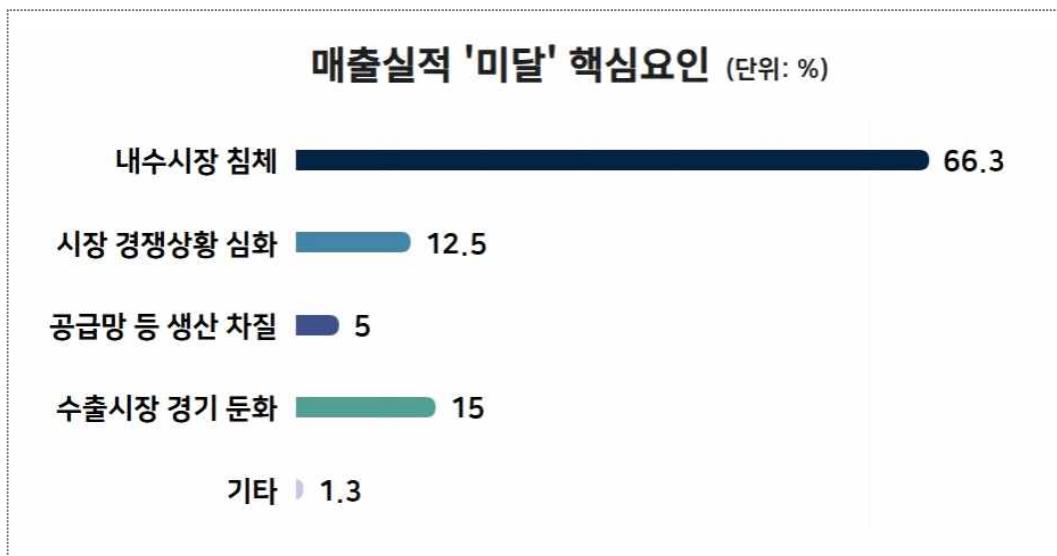
1) 귀사의 2025년 매출실적은 연초 목표 대비 어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응답기업의 74.8% [10% 이내 미달(42.1%), 10% 이상 미달(32.7%)]가 연초 계획한 매출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연간목표 달성(13.1%)’, ‘10% 이내 초과 달성(7.5%)’, ‘10% 이상 초과 달성(4.7%)’이라고 응답



1-1) 연초 목표 대비 ‘미달’을 예상한 핵심 요인은 무엇입니까?

- 응답기업의 66.3%가 ‘내수시장 침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수출시장 경기둔화(15.0%)’, ‘시장 경쟁 상황 심화(12.5%)’, ‘공급망 등 생산 차질(5.0%)’, ‘기타(1.3%)’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으로는 ‘주력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대응 미흡’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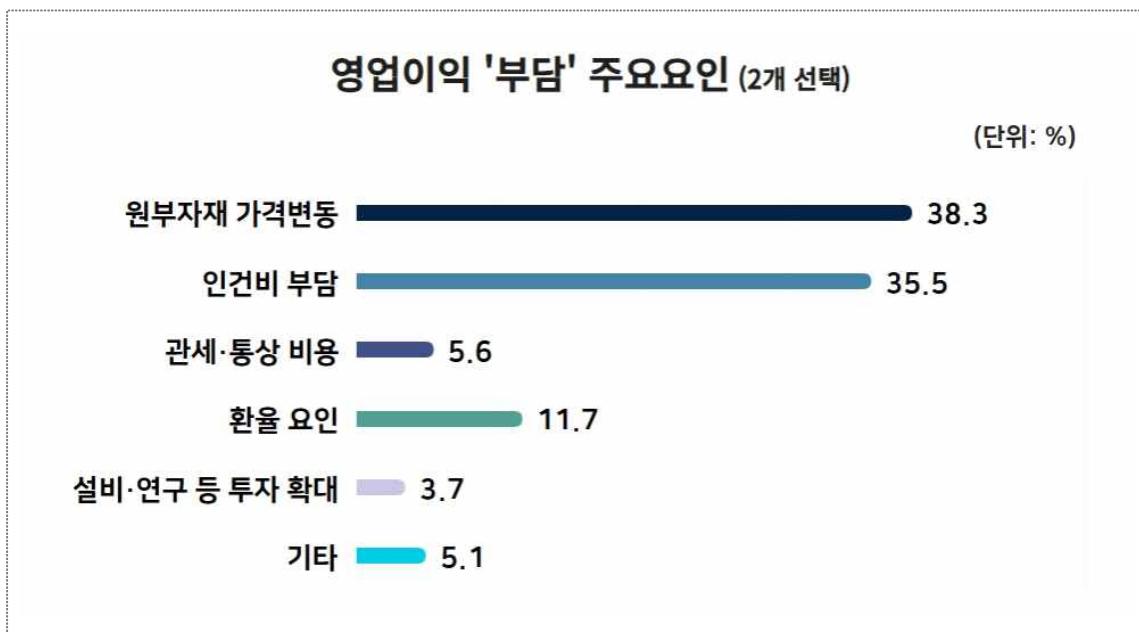
2) 귀사의 2025년 영업이익은 연초 목표 대비 어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응답기업의 72.9% [10% 이내 미달(41.1%), 10% 이상 미달(31.8%)]가 연초 계획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연간목표 달성(17.8%)’, ‘10% 이내 초과 달성(3.7%)’, ‘10% 이상 초과 달성(5.6%)’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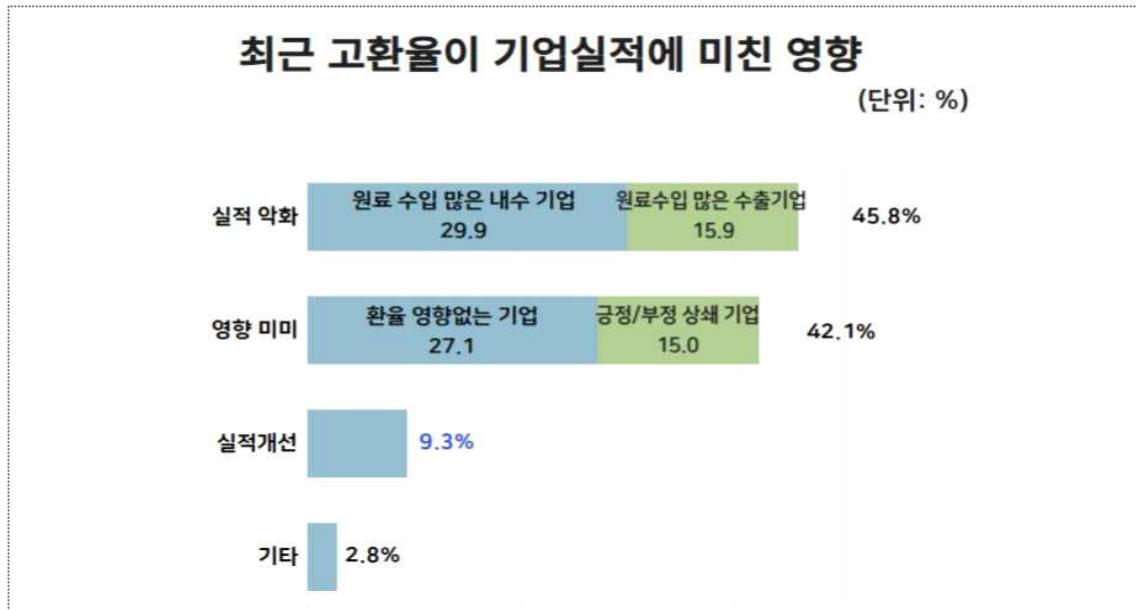
2-1) 귀사의 영업이익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응답기업의 38.3%가 ‘원부자재 가격변동’ 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인건비 부담(35.5%)’, ‘환율 요인(11.7%)’, ‘관세·통상비용(5.6%)’, ‘설비·연구 등 투자확대(3.7%)’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으로는 ‘매출이익 감소’, ‘경쟁업체 저가 수주 경쟁’ 등의 응답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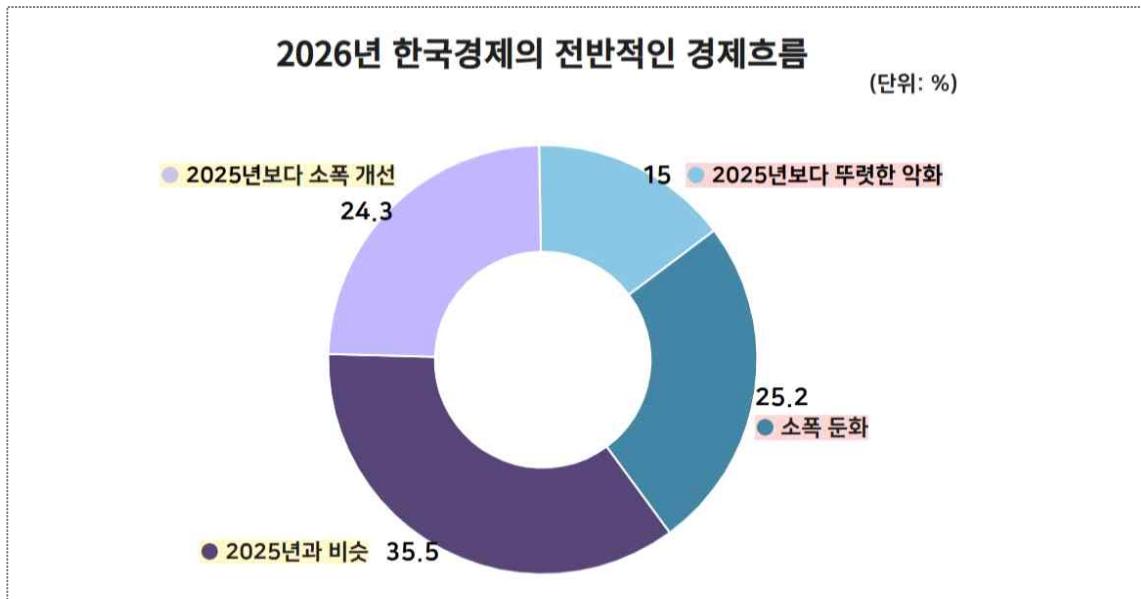
3) 현재와 같은 고환율 상황¹⁾이 귀사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세요.

- 응답 기업의 29.9%가 ‘수출 비중 작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실적 악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국내 조달·국내 판매 중심으로 영향 미미 (27.1%)’, ‘수출 비중 높지만, 수입원가 부담이 커져 실적 악화 (15.9%)’, ‘수출·수입 비중이 커도 서로 상쇄 돼 영향 미미 (15.0%)’, ‘수출 비중이 높아 실적 개선 (9.3%)’, ‘기타(2.8%) 순으로 응답



4) 귀사는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2025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응답 기업의 35.5%가 ‘2025년과 비슷’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소폭 둔화(25.2%)’, ‘2025년보다 소폭 개선(24.3%)’, ‘2025년보다 뚜렷한 악화(15.0%)’ 순으로 응답



1) 고환율 상황: 환율 상승은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있음

5) 귀사는 2026년 내수 및 수출 실적 목표치를 2025년 실제 달성한 실적 대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까?

5-1) 내수 실적 목표

- 응답기업의 29.9%가 ‘2025년 실적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10% 이상 축소(17.8%)’, ‘10% 미만 확대(17.8%)’, ‘10% 이상 확대(17.8%)’, ‘10% 미만 축소’(16.8%) 순으로 응답

5-2) 수출 실적 목표

- 응답기업의 42.1%가 ‘2025년 실적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10% 미만 확대(16.8%)’, ‘10% 이상 확대(16.8%)’, ‘10% 이상 축소(13.1%)’, ‘10% 미만 축소(11.2%)’ 순으로 응답

2025년 실적 대비 2026년 내수목표치 및 수출목표치

(단위: %)

[내수목표치]

17.8	10% 이상 축소	13.1
16.7	10% 미만 축소	11.2
29.9	2025년 실적 수준	42.1
17.8	10% 미만 확대	16.8
17.8	10% 이상 확대	16.8

[수출목표치]

6) 귀사의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는 무엇입니까?

- 응답기업의 57.0%가 ‘안정(유지) 경영’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축소경영(22.4%)’, ‘확장(성장)경영(20.6%)’ 순으로 응답

6-1) 귀사의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는 무엇입니까?

- 응답기업의 63.6%가 ‘경기·수요 전망’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비용·수익성 요인(23.4%)’, ‘기업 내부 사정(6.5%)’, ‘대외 통상 리스크(3.7%)’, ‘정책·규제 환경변화(2.8%)’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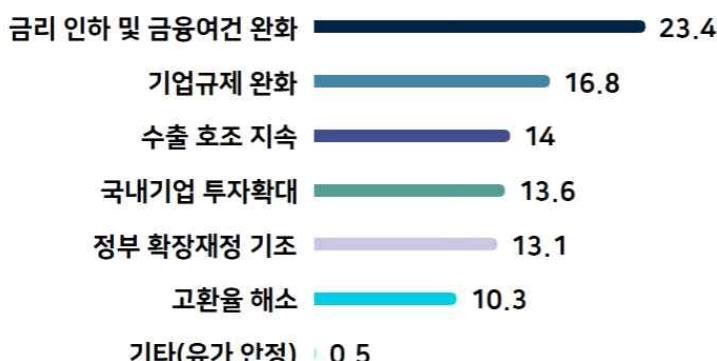


7) 귀사가 생각하는 2026년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은 무엇입니다? (2개 선택)

- 응답기업의 23.4%가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기업 규제 완화(16.8%)’, ‘수출호조 지속(14.0%)’, ‘국내기업 투자 확대(13.6%)’, ‘정부 확장재정 기조(13.1%)’, ‘고환율 해소(10.3%)’, ‘기타(유가 안정)(0.5%)’ 순으로 응답

2026년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요인 (2개 선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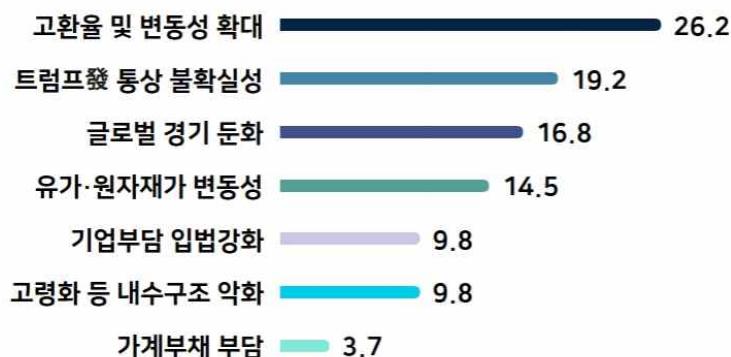


8) 귀사가 생각하는 2026년 한국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은 무엇입니다? (2개 선택)

- 응답기업의 26.2%가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트럼프發 통상 불확실성(19.2%)’, ‘글로벌 경기 둔화(16.8%)’, ‘유가·원자재가 변동성(14.5%)’, ‘기업부담 입법 강화(9.8%)’,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악화(9.8%)’, ‘가계부채 부담(3.7%)’ 순으로 응답

2026년 한국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하방'요인 (2개 선택)

(단위: %)



9) 2026년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응답기업의 22.9%가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국내 투자 촉진 정책(20.6%)’, ‘환율 안정화 정책(20.6%)’, ‘소비 활성화 정책(15.4%)’, ‘위기산업 지원정책(13.6%)’, ‘AI·첨단산업 육성 지원책(4.7%)’,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0.9%)’ 순으로 응답
- 기타 의견(1.4%)으로는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기업 규제 완화’, ‘건설 경기 활성화’라고 응답.

**2026년 경제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부 정책 (2개 선택)**

(단위: %)



- ※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http://ansancci.korchem.net>)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T. 031-410-3030(#247)】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발행처: 안산상공회의소

○ 발행일: 2026. 1. 14.

[비매품]